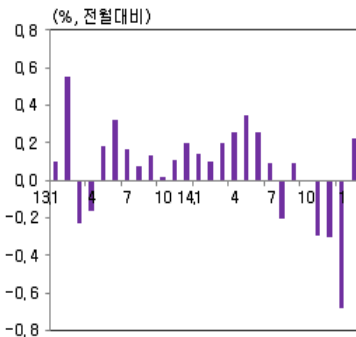


미국 2월 근원물가 상승률 안정적 수준을 유지

-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에너지가격 상승세 전환 등으로 14.11월 이후의 하락추세를 멈추었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안정적 수준을 유지
  - 2월 CPI(3.24일 발표)는 시장예상치(+0.2%)와 동일한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동월대비로는 0.0%(1월, -0.1%))
    - 한편 수입물가(에너지 제외) 상승률은 전년동월(전월)대비 1.8%(0.4%) 하락
  - 반면 Core CPI는 시장예상치(0.1%)를 소폭 상회(0.2%)하였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.7% 상승하며 전월 보다 상승폭이 확대(1월 1.6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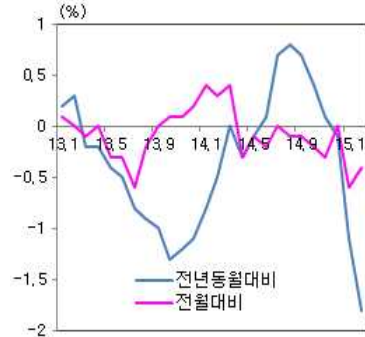
소비자물가 상승률



근원물가 상승률



수입물가(에너지 제외) 상승률



자료: BLS, Bloomberg

— 근원물가 상승세가 예상보다 소폭 강화된 것은 의료서비스 가격 하락(-0.2%)에도 근원 상품가격(0.2%) 및 집세(0.2%)가 상승한 데 주로 기인

소비자물가 항목별 상승률

	2014년			2015년	
	10월	11월	12월	1월	2월
(총 항목)	0.0	-0.3	-0.3	-0.7	<b>0.2</b>
■ 식품	0.2	0.2	0.2	0.0	0.2
■ 에너지	-1.2	-4.1	-4.7	-9.7	<b>1.0</b>
• Energy commodities(가솔린 등)	-2.1	-7.0	-9.0	-18.0	2.1
■ 식품 및 에너지 제외(core)	0.2	0.1	0.1	0.2	<b>0.2</b>
■ 상품(core)	0.0	-0.3	-0.2	-0.1	<b>0.2</b>
■ 서비스(에너지서비스 제외)	0.2	0.2	0.2	0.3	0.1
• 집세	0.2	0.2	0.2	0.3	<b>0.2</b>
• 의료서비스	0.2	0.3	0.3	0.1	<b>-0.2</b>

□ 시장에서는 금번 2월의 근원물가가 시장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이례적인 상품 가격의 상승\*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완만한 물가상승의 추세가 근본적으로 바뀌진 것은 아니며 향후 달러강세, 완만한 경제성장세 등에 따라 근원물가는 금년 상반기중 다소의 하락 압력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

\* 14개월 만의 중고차 가격 큰 폭 상승(전월대비 1%) 등의 영향

○ 수입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근원상품 가격이 상승추세를 지속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(Credit Suisse, BNP Paribas, HSBC, 3.24일)

○ 향후 완만한 경제성장세가 예상되고 작년 3~5월중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던 근원물가 상승세에 대한 기저효과 등으로 금년 상반기중에도 물가하락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(Barclays, BOA Merrill Lynch, Morgan Stanley, Goldman Sachs, 3.20일, 3.24일)

— 다만 서비스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며 근원물가 추가 하락압력을 완화

○ 근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2%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연준이 금리인상 시기를 앞당길 만한 물가상승압력도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(Citi, 3.24일)

□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근원물가 상승세 지속으로 2월 근원 PCE는 지난달 보다 소폭 상승한 1.4%(전년동월대비)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여전히 금년 중반 연준의 금리인상이 가능할 것(not a game changer\*)으로 예상(JP Morgan, Credit Suisse, 3.24일)

\* 작년 하반기 이후의 저 인플레이션 우려 등으로 금리인상이 지연될 것으로 보는 의견

